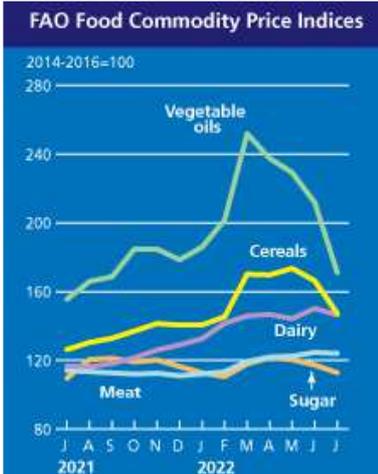




##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재반등

- 식품가격지수는 2.3% 하락하며 3회 연속 하락세



지난달 재반등했던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가 지난 7월 전월대비 2.5% 떨어지며 다시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25.4%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탈지분유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버터 및 전지분유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유럽에서 여름휴가가 시작되고 높은 유제품 가격에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즈는 해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AO 식품가격지수도 140.9포인트로 전월대비 8.6% 떨어지며 4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13.1%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식품 수요 감소로 유제품, 설탕 및 육류 가격은 물론 유지류 및 곡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8월 5일자 >

## [낙농경영] 아일랜드, 드론 활용 젖소 방목 최적지 발굴

- 드론 및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 목초지 성장 수준 및 품질 등 분석



아일랜드에서 드론을 활용해 젖소의 방목 최적지 선정을 위한 예측 모델 개발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낙농기관 Teagasc은 더블린 대학교와 더블린 시티 대학교와 협력해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젖소 방목을 위한 최적의 목초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원유생산량 증가 및 동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목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및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목초지 성장 수준 및 품질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측정해 젖소들이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최적화된 환경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siliconrepublic.com, 8월 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